

# 이 용 운 회장 앞



박 창 근  
(환경교육회 회장)

그동안 안녕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그곳 한국은 본 올림픽의 열기도 가라앉아 조금은 허탈한 그런 가을의 스산한 바람이 불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자올림픽이 무관심(?)속에 치뤄지고 있지나 않는지? 걱정됩니다.

말이 나왔으니 망정이지, 이곳 뉴욕에서는 서울 올림픽에 대해서 그렇게 지나친 관심은 보이지 않았읍니다. 물론 T.V등에서 올림픽 소식을 보도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 운동경기에 대한 뉴스였지, 우리네와 같이 나라 전체가 死活을 건듯한 그런 범석은 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기야 미국인들 42%가 '88올림픽을 어느 나라에서 개최하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는 의식조사가 올림픽 개

막 보름전에 발표되었을 정도이니..... 그런데, 장애자 올림픽에 대해서는 무척 날카로운 비판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시설면은 물론, 한국정부가 장애자 올림픽에 갖는 자세를 호되게 두들기더군요.

한마디로 무지몽매한 사람(정책)들이라고 할 정도로 꼬집어, 얼굴을 들고 다닐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찌 되었거나 이제 올림픽도 끝났고, 다시 그동안 일부 유보해 놓았던(?) 정치, 경제, 사회문제들이 호되게 거론될텐데 그 귀추가 걱정됩니다.

그중에서도 올림픽 일변도를 망쳐놓은 우리의 환경복구 문제가 제일 큰 관심사입니다.

말로는 올림픽만 치루면 무엇이 된다고 했으니, 이제 올림픽도 끝나 무엇이 되긴 되어야 할텐데..... 멀리서 보는 조국의 사사건건은 우울하고 답답해만 보입니다.

특히, 환경문제에 있어, 이제는 다른 일에 밀려 멀찌감치 뒤로 처지거나 앓을런지? 올림픽 때문에 비록 미장공사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강과 주변의 북한산, 남산 등의 야산, 그리고 도시에 환경보호라는 이름의 관심이 기우려졌었는데..... 이제 그 명목인 올림픽이 끝났고, 또 그동안 올림픽 뒤로 잠시 돌려 놓은 반환경 보호적인 일들을 다시 꺼내 민주화란 이름으로 선심싸야 할테니..... 그것이 걱정이란 말입니다.

공장의 공해방지시설 그 시설비를 빼내기 위해서도 이제는 열심히 기계를 가동시켜야 되고 그 원천적인 이익을 위해서 오염은 더욱 가속화 될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우리네 기업주의 뇌리에는 공해방지라는 그런 감상적(?)인 휴머니즘은 없습니다.

이 시간 그들은 올림픽에 빼앗긴(?) 시행착오의 손비를 빠른 시간내에 되찾아야겠다는 생각 뿐입니다. 환경보호라는 것은, 관의 정책담변용이요. 대국민 홍보 행정용 줌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올림픽때문에 압력받은 공해방지 결순(?)을 이제는 상쇄해야 되겠다 버리고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런 일부 악덕 기업주 밑에서 환경을 지키는

우리 환경관리인이 받는(받을) 수모가 얼마나 클 것인가를 생각하면, 분통이 터집니다.

이회장,

세계 환경인(환경보호 운동가)조직을 위해. 이곳 뉴욕에 온지도 벌써 4개월이 넘었습니다.

에썬, 뉴욕을 택한 것은 어찌 되었거나 뉴욕은 세계적인 도시 중의 도시로, 세계의 중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세계를 하나로 생각해 평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라 유엔본부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을 쉽게(가깝게) 건너갈 수 있는 위치라는 점도 감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착하는 날 걸린 식중독으로 거의 40일을 고생하다 보니, 스케줄이 꼬이고 다 뒤틀리고, 여비마저 병원비로 다 들어가고 나니..... 당장 숙식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맨허튼 34번가에 있는 미주 중앙방송국(KABC)에서 하루 40분씩 「시사평론」과 「생태계 강좌」를 방송하면서 뉴욕의 지리를 익혀야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고독한 섬 맨허튼에서, 아니 낙서와 쓰레기와 뒤범벅이 되어 사는 더러운 허드슨 강변에서 환경보호를 역설하고 있자니.....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은 같은 민족이라는 우리 교포들의 몰이해였습니다. 20만이 넘는 뉴욕의 한인 교포들은 생업에 바빠서 환경은 커녕, 돈벌이만 된다면 공해라도 만들어 팔겠다는 시퍼런 서술에 그만 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모여 살고 있는 Flushing엔 아이에 발걸음도 하지 않습니다. 대화는 커녕 그런(환경보호) 말만 꺼내도 어디 火星에서 온 이방인가 싶게 쳐다보는 시선에 질린 것입니다.

미국의 소수민족중에서도 그래도 아테리 사람들이, 환경문제에 이해가 깊고, 대부분의 백인과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제일 환경문제에 대해 관심을 보여 주고 있



▲뉴욕항구에서 필자

어, 그들과 어울리려 애씁니다.

이곳 환경보호청의 일본인 2세 관리에게 많은 신세를 지고있습니다. 특히 그의 公的인 출장에 두어번 동행할 수 있어 큰 경험을 얻기도 했습니다.

얼마전에는 허드슨강 상류의 하수처리장엘 안내받아 갔었는데, 그곳 관리인들의 투철한 직업의식이라고 할까요, 환경보호에 임하는 자세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곳 환경보호청 직원들의 환경에 대한 전문적 연구 자세는 놀라웠습니다. 우리네같이 부처간의 이동이 심하지(?)않아, 원한다면 정년까지 한곳에 머물 수 있어, 공무원의 전문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부처는 몰라도 전문성을 요구하는 환경직만은 평생직으로 정착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회장

어려운 여건하에서 애쓰시는 우리 환경인들 그 중에서도 환경관리인의 건투를 멀리서 빕니다.

곧 만나뵈리라 생각하고 오늘은 이만 줄입니다.

1988년 10월 뉴욕에서